

# ‘오일허브코리아’ 새 파트너 찾는다

## 여수 삼암동에 내년말까지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석유공사, 사업 스펀 오일탱킹 대체 주주 영입 나서

여수시 삼암동 일원에서 동북아 지역 오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오일허브코리아(Oilhub Korea)여수(주)’(이하 OKYC)가 대체 주주 영입에 나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여수시와 OKYC 등에 따르면

KNCC여수(주)는 국내 자본(51%)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등의 주주만으로 사업자명을 ‘Oilhub Korea여수(주)’로 변경하고 지난 2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일부에서는 해외 주주들이 빠져나가지 공사 차질을 우려했으나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년말 완공 예정이다. OKYC 관계자는 “글로벌 석유류 류 기업들이 자본 참여를 타진해와

현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 자본 참여와는 상관없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일 허브사업은 여수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내 유휴부지 21만여㎡에 50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유류 저장 탱크(820만 배럴) 43기와 입출하 부두(4선좌)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벌교읍 고을리 들녘에서 ‘무논점파 재배 연사회’를 가졌다. ‘무논점파’는 무논(담수)상태에서 물을 만들어 일정 간격으로 범세를 뿌려 노동력 절감과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보성군 제공>

## 순천대-유럽 4개대학 학생 교환·교육 실습 협력

순천대학교가 최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4개대학과 교육협력 MOU를 맺었다. 4개 대학은 핀란드 센트럴 오스트로 보스니아 대학과 울무 대학,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에스토니아 탈린 대학 등이다. 이들 각 대학 대표들이 지난 24일 순천대를 방문, 교환학생 및 교수 파견, 교육실습, 교직원 교류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우수학생 양성, 상호



## ‘S-OIL’ 불우이웃 찾아 ‘사랑의 봉사’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은 지난 29일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단은 무료 급식 배식과 함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식사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또 순천시 별량면 민음가득주유소 정영석 대표(56)는 S-OIL상품권 200만원을 복지관에 기부했다.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은 지난 달 3일 광주·전남지역 S-OIL 주유소

대표자 중에서 사회 봉사활동 의사가 있는 11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씩 지역의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200만원의 상품권 전달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S-OIL 호남지역 김영배 본부장(55)은 “작은 힘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돕자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광양경찰서-광양시 기초질서 지키기 전개

광양경찰서와 광양시가 시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양경찰은 기초질서 문화조성 홍보, 유관기관과 함께 의식 함양 교육, 교통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거

연구 협력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순천대생 4명이 이들 대학에, 이들 3개 국가에서 3명의 대학생이 순천대로 각각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등 협약이행에 들어간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순천대가 국제적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부감을 줄이고 계층별로 단속강도를 다르게 구사해 최대한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양경찰은 시와 긴밀한 협의 속에 범질서 의식변화 확립을 위해 ▲중앙분리교체 ▲광양항 배후도로 무인카메라 거치대 설치 ▲도심 불법 주·정차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j0479@

# 전 북

## 반딧불 빛으로 하나되는 세상

### 무주 내일부터 환경테마 반딧불 축제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을 소재로 한 환경테마축제인 ‘반딧불축제’가 3일부터 11일까지 무주군 등나문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반딧불 빛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환경 행사와 문화·예술, 민속체험, 전시, 상설행사 등 자연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환경행사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환경심포지엄, 형설지공 체험과 반디마실 길, 자연학교 운영, 전국 환경예술제, 팻목타기체험, 설다리시연, 전국 환경도피대회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반딧불이 신비 탐사는 반딧불이 집단서식지인 용포리 잠두마을과 가족리 갈골마을에서 행사기간 매일 오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실시되며 인터넷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출발한다. 테마파크 건강체험장에 마련된 반딧불이 주재관은 반딧불이 일생을 주·야간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도록

암막을 설치했다. 공연 예술행사로 예체문화관 소공연장에서 연극 ‘그 남자 그 여자’와 인형극 ‘옛날에 할머니는’, 어린이뮤지컬 ‘지지베베 지지베베’ 등 가족과 함께 보는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됐다. 남대천에서는 안성면 두문마을 주민이 펼치는 나뭇잎이, 부남면 디딜방아 액마이 놀이, 무풍 기질놀이, 전라좌도 무주 곳 농악, 산의 실 수태 세우기 등이 테마파크와 한풍루에서 펼쳐진다. 체험행사는 목공예와 천연염색, 천연비누 만들기, 규방공예, 퀵트, 도자기공예, 나전칠기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반디공예관에서 이어진다. 부대행사로 화폐전시관 운영과 사랑의 거리, 천문과학관, 3도3군 관광협의회 홍보관, 백제문화관 관광벨트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된다. 이밖에 반디 컵 어린이 축구대회와 전국 비비이 경연대회, 무주항교 체험행사, 반딧불 사계 사진전시회, 명승지 시화 전시회 등이 열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최고 땅값 m당 750만원

전북도는 2011년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토지 250만 4천 필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m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북의 개별공시지가는 실물경기

회복,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각종 개발사업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94% 상승했다. 공시지가 총액은 65조3000억 원이며 평균 지가는 m당 9000원이다. 도내에서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이며 지난해보다 m당 10만원이 하락한 750만원이다. 반면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 44-3번지 임야는 m당 56원으로 가장 낮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뉴스 브리핑

### 전주한식 세계화 반찬공모전...10일까지 접수

전주한식 반찬클러스터 사업단은 전주한식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숨은 반찬명이나 지역 및 가문의 내림 음식 발굴을 위해 ‘제1회 전주한식 반찬공모전’을 개최한다. 서류접수는 오는 10일까지, 반찬출품은 오는 21일까지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로 하면된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기준은 ▲향토성 ▲재료특성 ▲한식세계화 ▲상품화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이번 한식반찬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주)찬드림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지역 식품, 제조, 음식업소 대표 등이 모여 ‘찬드림’이라는 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익산시-원광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협력

익산시와 원광대가 익산시 왕궁면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한수 시장과 원광대 정세현 총장은 지난 31일 시청 홍보관에서 양측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D 중심의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맞춤 교육 등에 관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과 정 총장은 체결식이 끝나고 나서는 원광대로 함께 이동해 ‘원광식품산업연구원’ 현관식’에도 참석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 건립 임대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이 건립돼 국내외에 임대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 백산면에 조성중인 자유무역지역에 2012~2013년 총 면적 3만여㎡의 표준공장 3개 동(4층 규모)을 건립해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표준공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장을 미리 건축해 기업에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공장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 주고 유사 업종의 집대화를 통해 기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정읍시, 경조사에 쌀 화환으로 사랑나눔

정읍시는 1일 회남나눔 쌀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각종 기념식과 경조사에 꽃 화환 대신 쌀을 넣은 화환을 보내기로 했다. 협약은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등 경조사와 기념행사에 쌀 화환으로 보내 낭비적인 화환 문화를 줄이고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꽃 대신 들어온 쌀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새만금 동북아 경제 중심지 되려면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부터”

## 새만금 개발 국제포럼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 ‘새만금 국제포럼’에서 외국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이(上海) 창익식품 개발센터 후무청(胡木清)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새만금은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이끌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규제 완화와 고급 인력을 확보할 정주환경 구축, 산학연 연계 기반을 위한 국제적 산업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기업들은 연평균 20% 이상의 임금 인상으로 국외 투자를 활발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중국이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한-중간 인적·물적 교류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최대 부동산 그룹인 트러프 그룹의 도널드 트러프 주니어 수석 부회장은 “미래의 거주자와 투자자를, 기업들을 새만금으로 끌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면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국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희시설 갖춘 통합리조트도 필요

서 “경제자유구역의 면세,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제 완화 등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조지 타나시비비츠 최고 경영자는 새만금에 통합리조트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코퍼레이션은 게임과 유희시설, 컨벤션과 전시 시설, 레스토랑, 숙소 등을 고루 갖춘 통합리조트로 세계적인 곳”이라고 소개한 뒤 “새만금에서 통합 리조트의 개발은 중요하며 새만금 전체 사업 중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이어 “카지노형 통합리조트의 개발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으로 유출되는 게임 자본을 새만금에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날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무비자 제도 도입 ▲무관세·무제한 외환거래 제도 도입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학교나 의료기관 설립 때 투자 인센티브 ▲종합 보세구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